

“광주 산정지구 50필지 투기 의심...경찰 직접 수사하라”

정의당 광주시당 거래 419필지 조사
2019년부터 토지 지분 쪼개기 급증
지난해 그린벨트 거래도 6건 확인
주민 대책위는 지정 철회 시위 나서

광주시가 광산구 산정지구 공공택지 개발지구에 대한 공직자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투기 의혹이 다수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산정지구 주민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에서는 '정부의 지정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집단행동에도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정의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광산구의 회 김영관 의원과 함께 최근 6년간 산정지구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투기성 거래가 증가했고, 2019년부터는 토지 지분 쪼개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2010필지 중 거래가 있었던 419개 필지를 조사한 결과 50여필지는 투기성을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지지구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에게 단독주택 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토지 지분 쪼개기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토지 소유를 여럿이 나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는 택지지구 지정 정보에 따라 토지 쪼개기를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정지구의 지난해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거래도 6건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거래가 집중돼 있다는 것은 개발 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투기 의혹을 제기

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산정지구에 대한 광주시와 광산구청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 조사 결과 투기성 거래가 없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 지역 공직자뿐만 아니라 광주도시공사, LH 등 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공기관 관계자는 모두 조사해야 한다"면서 "산정지구 토지 지분 쪼개기와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광주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앞서 광주시는 산정지구 일대 전체 4000여건의 토지 거래 중 핵심지인 402건에 대한 1차 조사에서 공무원 2명이 6건의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이번 신도시 계획 발표에 앞선 4~15년 전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투기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번 1차 조사의 범위가 긴급성 때문에 전체 조사건수 중 10%에 불과하고, 광주시와 광산구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만큼 누락한 나머지 거래 내역과 동·서·남·북구 공무원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 등도 진행하기로 해 향후 전수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함께 산정지구 주민과 입주업체 등으로 대책위가 구성되고, 이들이 정부의 공공택지 개발 지정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조만간 광주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 앞에서 '정부의 지정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비롯한 1인 시위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산정지구 공공택지 사업은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 168만3000㎡(51만평) 대지에 광주형 일자리 주거 지원과 광주형 평생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 1만3000세대와 생활기반 시설, 자족용지 공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왼쪽)이 1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도착,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오른쪽)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계획이 승인되면 2024년 보상착수, 2025년 착공에 이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美 국방 “중·북 전례없는 위협...한미동맹 더 중요”

방한 첫날 한미국방장관 회담

블링컨 국무장관도 방한 일정 돌입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7일 “북한과 중국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방한 첫날인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오늘 저는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서욱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양국은 군사동맹으로서의 결속력을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이날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트윗을 시작으로 방한 일정에 들어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방한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만나기 위해 국방장관과 함께 서울에 오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한

국과 미국의 동맹은 강력하다”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부터 기후 위기, 핵확산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세계적 도전과제들을 대처하는데 협력하도록 해준다”고 덧붙였다.

미국 외교안보 ‘투톱’인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일본 방문을 마친 뒤 한국에 도착했다. 미국 국무·국방 장관의 동시 방한은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장관은 이날 각각 한국의 카운터파트와 양자 회담을 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외교·안보 수장의 대면 회담은 처음이다.

한미 외교·국방 장관은 18일 오전 한자리에 모여 ‘2+2회의’를 연다. 4명의 장관은 회의 뒤 공동기자회견을 할 예정으로, 북한문제 등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두 장관을 개별 면담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밤, 오스틴 장관은 19일 오전 각각 한국을 떠난다. /연합뉴스

‘전남 섬 고령자 백신’ 화이자서 운반·보관 쉬운 AZ로 변경 추진

섬지역 보건지소·병원선 접종도

전남도 “지침 변경 정부와 협의 중”

65세 이상 전남 도서지역 주민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불편과 관련해 전남도가 17일 “섬지역 주민이 보건지소와 병원선 등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협의의 아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현재 보건소, 예방접종센터(체육관 등), 위탁의료기관(병원 등)에 한정된 예방접종기관에 섬지역에 설치된 보건지소 및 병원선을 추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며, 조만간 관련 내용이 담긴 지침 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교통이 불편한 섬지역에는 보관과 운반이 까다로운 화이자백신 대신, 보관 및 운반이 용이한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등)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섬지역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지소 의료진이 소재지 주민 및 관광 보건진료소를 방문해 예방접종하고, 의사가 없는 무의도서는 병원선 순회 진료 시 접종을 받도록 해 섬주민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정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접종 후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보건지소 소재 주민은 의사 및 마을 이장이 이상반응을 관찰하고, 보건소 소재 주민은 방문접종팀이 진료소 소재지에 숙박하면서 반응을 관찰하도록 정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혹시 모를 이상반응 발생시 중증 이상반응자는 헬기(닥터·소방·해경)를 이용해 긴급 후송하고, 발열 등 경증 이상 반응자는 인근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으로 이송후 조치할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부는 지난 15일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방안 등이 포함된 2분기 코로나 19 접종 계획을 발표했지만 섬지역의 특수성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전남 섬지역 고령자 1만6000여명은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관찰을 위해 육지로 ‘1박2일 고행길’에 올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교통 불편과 체재비 부담 등으로 접종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75세 이상 주민에게 운반과 보관이 까다로운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가능한 화이자백신을 4월 초부터 접종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섬지역에는 센터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는다. 5월 접종이 시작되는 65~74세 고령자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계획을 세웠지만, 섬지역에는 위탁의료기관, 보건소가 없는 곳이 많아, 역시 육지로 1박2일간의 접종 여정을 떠나야 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